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에 대한 평가와 사용 방법

이민규*

1. 들어가는 말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이 사전은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존 사전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단어가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점부터 기존 사전과는 뭔가 다르다. 한 단어가 한 곳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다. 여태까지 전통적인 그리스어-영어 사전은 낱말 중심이었다. 그러나 만일 한 단어가 여러 다른 의미들을 지니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공유하기도 한다면, 의미들을 중심으로 한 사전을 만드는 것은 과연 어떨까?

일반적으로 로와 나이다 사전이라 불리는 『의미 영역을 기초로 한 그리스어-영어 신약 사전』¹⁾이 바로 그러한 사전이다.²⁾ 의미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단어의 의미들을 체계화된 다양한 의미 영역의 범주에 맞추어 설명하였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제 1권에는 다양한 의미 영역(semantic domains)이 나오고 그 영역에 소속된 단어들의 개념들이 설명되어 있다. 제 2권에 가야 알파벳순으로 그리스어-영어, 영어-그리스어, 그리고 성서 색인이 나온다.

번역을 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은 바른 번역일 것이다. 상응하는 번역어의 단어를 찾기 위해서 좋은 사전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의미론에서 말하는 것을 따르면 단어에는 소위 말하는 ‘기본 의미’ 혹은 ‘핵심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문맥에 따라 의미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즉 단어 자체가 수학이나 물리학의 기호처럼 그 의미의 요점을 정확히 보여주거나 의미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³⁾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는 것이다.⁴⁾ 이

*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신약학

1) Johannes P. Louw and Eugen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2) Louw and Nida 사전은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Greek New Testament*의 텍스트와 아파라투스(apparatus)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00여 개의 단어와 관용어에 관한 사전적 항목들(lexical items), 그리고 이 항목들에 관한 25,000개 이상의 의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작업임이 틀림없다.

는 단어는 항상 동일한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 영역을 향해 열려 있는 상징, 즉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리고 문맥과 읽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사전을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단어들과 낱말들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바른 선택이다. 여러 가능성 중 어떤 설명어를 선택해야 가장 바른 번역이 될 것인가?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면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원어의 언어와 문화를 매우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직감적으로 어떤 용어 선택이 특정 문맥의 번역을 위해 잘못된 것이고 바른 것인지 잘 알 수 있겠지만 원어의 초급자나 중급자는 이런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전이 만들어졌다. 이 사전은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들을 의미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각 문맥에 따른 ‘정의’를 내려준다. 만일 이 작업이 그리스 문헌 전체의 문맥에서의 연구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이 사전이 연구한 문맥이 신약성서라는 제한된 분량의 책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93개의 의미 영역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 한 단어의 여러 의미들이 의미 영역에 따라 분류되어 서술적으로 정의가 내려지기도 하고, 서로 가깝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양한 단어들이 한 범위 안에서 비교 분석되기도 하였다. 또한 의미론에 바탕을 둔 최신의 전문적인 방법과 개념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탁월하고 독특한 사전임이 틀림없다. 이 사전의 등장으로 신약성서 번역에 있어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사전의 편찬 작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한 프레토리아 대학(University of Pretoria)의 요하네스 로(Johannes P. Louw) 교수와 미국 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and United Bible Society)의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 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 사전의 장점들을 알아보자.

3)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그 단어가 나오는 모든 문맥을 찾아내어 그 단어의 의미의 예문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석 혹은 번역하고자 하는 문맥에서 모두 읽어내려고 한다(59).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단어는 여러 의미가 동시에 내포된 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ugene A. Nida and Johannes P. Louw,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A Supplement to the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SIL Resources for Biblical Study 25 (Atlanta: Scholars, 1992), 59.

4) Ibid., 67-68.

2. 이 사전의 장점

2.1. 의미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전

이 사전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의미를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간 출판된 대부분의 사전들은 원칙적으로 낱말 중심의 사전이었다. 예를 들어 성서학자들 사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발터 바우어(Walter Bauer)의 『신약과 다른 초기 기독교 문헌들의 그리스 영어 사전(*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을 보더라도 원어에 상응하는 영어의 유사어와 설명어를 나열함으로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독일어 원서 여섯 번째 판을 근거로 하여 프레드릭 윌리엄 당커(Frederick William Danker)에 의해 보완 수정되고 2000년에 번역 출판된 세 번째 판 영어 바우어 사전은 그 전판들보다는 개념 설명과 사용된 예문들이 훨씬 많이 추가되어 있다. 그럼에도 단어 나열 중심의 기존적인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⁵⁾

로와 나이다 사전과 같이 의미 영역 중심의 사전의 장점은, 의미 공간(semantic space)에서 서로 겹치는 의미 범위를 지닌 다양한 단어들의 의미를 함께 비교 분석해 준다는 점과, 또한 반대로 경우에 따라 한 단어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들이 각기 너무 달라 한 의미 공간에서의 분석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 오히려 의미 영역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해 준다는 점이다. 원래 단어의 의미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언어를 사용하는 한 집단의 약속이며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뜻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에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뉴마(πνεῦμα)의 의미를 보자. 로와 나이다 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아래의 의미 영역들에서 다루어졌으며 번호를 따라 그 특정한 의미를 찾게 되어 있다.

- (a) 성령(Holy Spirit) 12.18
- (b) 영(spirit) 12.33.
- (c) 악령(evil spirit) 12.37
- (d) 유령(ghost) 12.42

5)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e) 내적 존재(inner being) 26.9
- (f) 생각의 방법(way of thinking) 30.6
- (g) 바람(wind) 14.4
- (h) 숨(breath) 23.186

사실 이 한 단어는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다양한 의미들을 지녔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은 그 특정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 영역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전에서는 “내적 존재(inner being)”라는 의미의 프뉴마(πνεῦμα)는 “26 심리적 기능들(Psychological Faculties) 26.1-26.16” 중 “26.9 프뉴마(πνεῦμα)”, 즉 범위 26의 하부범위인 26.9번에서 다루어졌고 “바람(wind)”의 의미는 “14 물리적 사건과 상태(Physical Events and States) 14.1-14.87” 중 14.4, 즉 범위 14의 하부 범위인 14.4에서 다루어졌다.

반대로 서로 다른 단어들이지만 의미 공간에서 서로 매우 가깝게 의미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 즉 다양한 단어들의 연관된 의미들이 의미 공간에서 중첩성을 띠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단어들은 같은 의미 영역에 놓여져 조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위 26에 있는 “심리적 기능들(Psychological Faculties) 26.1-16”에는 심리적 기능을 묘사하는 총 16개의 다양한 그리스어 단어들이 나온다. 그 중 몇 개의 예를 들면 26.1 호 예소 안트로포스 호 엔 토 크립 토 안트로포스(ὁ ἕως ἄνθρωπος ὁ ἐν τῷ κρυπτῷ ἄνθρωπος), 26.2 예소텐(ἔσωθεν), 26.3 카르디아(καρδία), 26.4 프쉬케(ψυχή), 26.5 이소프쉬코스(ἰσόψυχος) 등의 관용구와 낱말들이 있다. 이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이지만 의미의 상당부분을 공유하기에 한 곳에서 같이 다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문맥에 따른 공통적 의미와 차이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26 심리적 기능의 범위”에서 몇몇 단어들을 비교하여 보자.

26.3 카르디아, 아스(καρδία, ας) *f*: (“심장”의 의미의 상징적 연장, 신약에는 문자적 의미로 나타나지 않는다), 가슴, 내면의 자신, 마음에 특별히 강조점을 둔 다양한 방면의 심리적 삶의 원인이 되는 근원, 그러나 특히 생각들에 근거한 것이 강조된, - “가슴(heart), 내적인 자아(inner self), 마음(mind).”

26.4 프쉬케, 에스(ψυχή, ῆς) *f*: 생각(thinking), 의지(willing) 그리고 감정(feeling)의 면에서의 삶의 본질 - “내적 자아(inner self), 마음(mind), 생각들(thoughts), 감정들(feelings), 가슴(heart), 존재(being).”

26.9 프뉴마(πνεῦμα, τος) *n*: 비물질적이고 잠재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

하는 심리적 기능 [사룩스(σάρξ)와 대조되는 프뉴마(πνεῦμα) 26.7, 순수하게 인간과 대조되는 신적인 것에 대한 표현으로] - “영(spirit), 영적인(spiritual), 영적인 성격(spiritual nature), 내적인 존재(inner being).”

26.13 쉬네이대지스(συνείδησις, εως) *f*: (“어떤 것을 앎”의 의미의 συνείδησις와의 대조, 28.4)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심리적 기능 -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 양심(conscience).”

26.14 누스(νοῦς), 누스(νοός), 노이(νοί), 눈(νοῦν) *m*; 노애마, 토스(νόημα, τος) *n*; 디아노이아, 아스(διάνοια, ας) *f*: 이해(understanding), 추론(推論)(reasoning), 생각(thinking)과 결정(deciding)의 심리적 기능(the psychological faculty) - “마음(mind).”

26.15 프랜, 프레노스(φρήν, φρενός) *f*: 프로내시스, 에오스(φρόνησις, εως) *f*: 프로내마, 토스(φρόνημα, τος) *n*: 자주 현명하고 신중함이 암시되는 사려 깊은 계획(thoughtful planning)의 심리적 기능 - “사려 깊은 계획, 생각의 방향, 사고방식(outlook).”

이 사전에 따르면 위의 단어들의 심리적 기능들을 인간의 나뉜 부분들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한 인간을 다양한 기능적 측면에서 본 것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누스(νοῦς)와 카르디아(καρδιά)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데 이는 카르디아(καρδιά)가 히브리어 레브(*leb* 문자적으로 “마음”)의 번역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레브는 감정의 중심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지적인 삶의 중심을 가리킨다. 의미 영역에 근거한 이 사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분명히 서로 의미가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문맥에서는 의미가 겹치는 단어들의 미세한 차이들을 잘 설명해 준다는 사실이다.

이 사전의 또 다른 장점은 예문들에 관해 함축되어 있는 실질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엑뤼오마이(ἐκλύομαι)의 경우 두 번째 판 바우어 사전은 이 단어를 “become weary or slack(피곤하거나 혹은 맥 빠지게 되다)”, “give out(기진하여 지치다)”으로 설명한다.⁶⁾ 그러나 로와 나이다 사전은 그 함축적 의미까지 설명하여 더욱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한다. 사실 영어에서 이 두 낱말들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Give out”의 의미는 피곤으로 인해 어떤 일을 더 이상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become weary”는 단순히 “피곤하게 되다”를 의미할 뿐 이렇게 기진하여 포기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가

6)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06.

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와 나이다 사전은 실지로 엑뤼오마이(ἐκλύομαι)를 단순히 평범한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3.79 엑뤼오마이(ἐκλύομαι): 매우 피로하게 되다 그리고 소모되어 녹초가 되다 [to become so tired and weary as to give out (경우에 따라 극도의 피로로 기절하게 되다)(possibly even to faint from exhaustion)] - “극단적으로 피로하게 되다, 기진하여 지치다, 극도로 피로하게 되다, 완전히 소모됨, 탈진되어 기절하다(to become extremely weary, to give out, to faint from exhaustion)”

즉 엑뤼오마이(ἐκλύομαι)를 매우 지쳐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없이 피곤한 상태로 설명함으로 바우어 사전에 나타난 두 의미의 연결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 번째 판 바우어 사전은 이런 점에 있어 상당히 개선된 면을 보여준다. 새로운 바우어 사전은 엑뤼오마이(ἐκλύομαι)의 진한 글씨체로 강조된 주요 의미를 “**be exhausted in strength**(힘이 고갈되다)” 그리고 이탤릭 진한 글씨체로, “**become weary**(피곤하다)”, “**give out**(지쳐서 포기하다)”의 의미로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떤 정도의 피곤함을 의미하는가 하는 함축적 의미에 대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로와 나이다가 훨씬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의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사전은 필요에 따라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자상하게 긴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것은 낱말 중심의 기존 사전에서는 찾기 힘든 특성이다. 예를 들어 이 사전에서 레프라(λέπρα)의 의미를 보자.

23.161 레프라, 아스(λέπρα, ας) f: 피부의 지독한 상태(a dreaded condition of the skin), 현재 나병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including what is now regarded as leprosy), 또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들의 특별한 다른 유형들(as well as certain other types of infectious skin diseases),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란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다른 이들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격리가 된다(resulting in a person’s being regarded as ceremonially unclean thus excluded from normal relations with other people). — “나병(leprosy), 지독한 피부병(dread skin disease).”

이런 문화적 종교적 서술은 번역자가 이 단어를 바로 성서시대의 종교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알 때 번역자는 성서의 본문에서 예수가 문둥병 환자를 만진 행위가 예수가 문둥병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부정한 자의 처지로 친근하게 다가간 것

임을 알 수 있다.

2.2. 낱말 중심의 사전과 의미 중심의 사전의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신약성서의 번역에 있어 유사어 혹은 동의어로 된 낱말 중심의 사전의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의미론에 바탕을 둔 접근을 통한 단어의 정의가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낱말 중심의 전통적인 사전들은 실지로 원어에 상응하는 영어의 유사어들이 존재할 뿐 정확한 동의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어학적 원칙에 비추어서 간과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기 쉽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에서 A라는 단어가 영어의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될 수 있다면 그 다양한 영어 단어들 역시 각기 여러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즉 소개된 영어 낱말에는 그리스어 단어 A와 의미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유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낱말 중심의 사전들은 어떤 점이 공유되고 어떤 부분이 공유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약한 편이다.⁷⁾ 이런 사실은 번역자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좋을지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사전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느끼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전통적 사전에서 나열된 영어 낱말들은 정확한 의미의 전달보다는 단지 상응하는 단어를 통한 번역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다. 단어란 의미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범위를 지녔다. 어느 언어에서나 낱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때론 이렇게 혹은 저렇게 이해할 수 있는 모호성을 지닌다. 따라서 만일 그 표현을 이렇게 이해할 때 원어의 단어에 유사하지만 저렇게 이해하면 원어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즉 그리스어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 역시 모호한 의미 범위를 지닐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을 때에 단순히 유사한 낱말들을 나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번역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과연 어떤 유사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정확한지 판단이 쉽지 않을 뿐더러, 깊이 생각하지 못한 선택은 뜻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와 나이다 사전처럼 번역하려는 원어 단어의 의미를 의미 영역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서술적인 정의를 내려주는 경우에는 이런 난해함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초보자들에게 배우어 사전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모든 의미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배우어 사전의 경우 초보자들은 그 방대

7) 세 번째 판 배우어 사전과 같이 이런 약점이 어느 정도 보강된 사전도 있다.

하고 세밀한 분석에 먼저 복잡함을 느껴 주눅이 들기 쉽고 단어에서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찾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프뉴마(πνεῦμα)의 경우 바우어 사전은 깨알 같은 글씨로 5페이지에 걸쳐 설명하여 놓았다. 물론 세 번째 개정판은 크게 8개의 의미영역에 따라 프뉴마(πνεῦμα)를 설명하여 놓았지만 그래도 초보자들에게는 이 영역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더욱이 성서색인이 없어 성서의 특정 문맥에 사용된 용법을 찾으려면 모든 설명을 다 뒤져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로와 나이다 사전의 경우도 단어의 특정 의미를 위한 의미영역을 파악하기가 누구에게나 손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와 나이다 사전의 경우 의미영역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모든 성서구절이 다 완벽하게 색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경우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성서색인의 도움을 통해 특정 문맥에서의 의미만을 바로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우어 사전과는 달리 로와 나이다 사전은 그리스어 초급과 중급자 수준의 번역자들이 번역을 위한 설명어를 바로 선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낱말 중심의 바우어 사전의 단점을 보여주는 예를 한 번 보자. 카타람바노(καταλαμβάνω)는 바우어 사전에서 “빼앗다(seize)”, “이기다(win)”, “달성하다(attain)”, “자기 것으로 만들다(make one’s own)”로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해설용 예문들을 보면 이 의미 이외에도 “붙잡다(grasp)”, “극복하다(overcome)”, 그리고 “억압하다(suppress)”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한 단어가 경우에 따라 이렇게 서로 매우 다른 뜻들을 의미하는 경우 번역자는 자신 앞에 놓인 문맥에서는 이 단어를 과연 어떤 의미로 번역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번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아는 것이다. 로와 나이다 사전은 카타람바노(καταλαμβάνω)를 a) 획득하다(acquire) 57.56, b) 공격하다(attack) 39.48, c) 체포하다(seize) 37.108, d) 제압하다(overpower) 37.19 그리고 e) 이해하다(understand) 32.18의 의미의 범위로 분류하여 각 지시된 번호를 따라 그 단어가 특히 신약의 어느 문맥에서는 어느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서술하여 준다.

또 다른 예는 파리스타마이(παρίσταμαι)(17.3) “가까이 서 있다(to stand nearby)”이다. 이 단어는 요 19:26에서는 매우 우호적인 의도로 사용되었지만 행 4:26에서는 적대적인 의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로와 나이다 사전은 이 단어를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의도로 어떤 사람과 나란히 혹은 가까이 서 있다(to stand near or alongside of someone, either with friendly or hostile intent)”로 정의하고 있다(17.3). 그렇다면 행 4:26의 앞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세상의 왕들이 가까이 서 있어’라

는 뜻이다. 그러나 범위 17.3에서 보여주듯이 행 4:26의 앞부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세상의 왕들이 스스로를 준비하여(the kings of earth prepared themselves)’ 혹은 ‘세상의 왕들이 무장하여(the kings of earth armed themselves)’란 의미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로와 나이다 사전에는 이러한 의역의 가능성이 잘 설명되어 있다.

낱말들(glosses)은 보통 영어에 상응하는 특정 단어들로 표현되는 반면 단어의 정의는 그 단어가 지닌 의미의 독특한 특색들을 근거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이 사전에 따르면 에래모마이(ἐρημόμαι)(20.41)는 사막에 버려져 홀로 남은 상태를 암시하며 멸망당하거나 목숨이 빼앗기게 됨으로 고생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다.

바우어 사전에서 단어의 나열이 지니는 또 다른 문제는 경우에 따라 문화의 차이에 둔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지가 주를 이루는 문화에서 ‘산’은 고산지대의 다른 문화에서는 ‘언덕’에 불과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 한 언어의 ‘산’을 다른 언어의 ‘산’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 있다. 두 문화에서 산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최소한 각주에라도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리스어에서 산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문화와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서 번역자를 위한 이 사전의 크나큰 장점 중의 하나는 분명히 문화권과 다른 시대에 있어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하여 설명을 첨부해 놓았으며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 중 16:22에 나오는 “콜포스 아브라함(κόλπος Ἀβραάμ)(1.16)”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이지만 이는 분명히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문자적으로 이 표현을 이해할 때는 이런 질문까지 생길 수 있다. 나사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면 나사르는 원래 어린 아기였던가, 아니면 죽어서 어린 아기로 변했단 말인가? 혹은 아브라함이 거인이란 말인가? 로와 나이다 사전에서는 어떤 문화에서는 ‘품에 안긴다’는 표현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성의 품에 안긴다는 표현이 동성간의 성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문화에 따라 이 용어는 조심스럽게 번역되어야 한다.

이 사전은 ‘품에 안기다’는 표현이 종말론적 하늘의 잔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이것은 천상의 잔치에 나사르가 명예로운 손님으로 초대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와 나이다 사전에 따르면 눅 16:22는 TEV(Today’s English Version 오늘 영어판 성경)처럼 다음과 같이 번역

될 수도 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 천상의 잔치 때 아브라함의 옆 자리로 옮겨졌다(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sit beside Abraham at the feast in heaven).’ 따라서 눅 16:22절의 “콜포스 아브라함(κόλπος Ἀβραάμ)”은 그 의미상 ‘아브라함의 옆에’ 혹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위하여’로 번역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1.16). 이러한 설명은 분명히 바우어 사전에서는 볼 수 없는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이러한 설명은 거의 직역을 중심으로 의역을 피하는 RSV나 개역성경과 같은 성서의 개정을 위한 번역 작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각주를 달아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문화적 표현에 대한 예는 눅 18:13에서는 세리가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가슴을 친다”는 표현은 문맥상 회개하는 모습의 서술이다. 그러나 일부 문화에서는 가슴을 치는 행위는 자신감 혹은 자기 자랑에 대한 표현이기에, 이를 “머리를 치며” 혹은 “배를 움켜잡으며” - 로 번역해 주어야 한다고 로와 나이다 사전은 권고하고 있다(19.1).

또 다른 좋은 예는 폴리스(도시, πόλις)이다. 이 단어는 1.89에서 “비교적 큰 중요성을 지닌 인구의 중심지(a population center of relatively greater importance)”라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보가 이 평범한 설명 이후 제공되고 있다. 로와 나이다 사전은 이 단어가 1.92의 “촌락(village)”의 의미인 코메(χομή)나 “읍(town)”의 의미인 코모폴리스(χωμόπολις)와 반대된 개념이고 성벽과 성문이 있는 요새의 개념이며 그 경제적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위성도시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즉 신약성서의 도시의 개념은 전쟁을 대비한 성벽으로 휩싸여 있는 요새라는 점에서 현대적 도시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2.3. 의미 영역의 분류와 체계성 그리고 그 장·단점

이 사전은 현재 신약성서의 번역을 위하여 무엇보다 의미 영역이 강조된 유일한 사전이기도 하지만 의미의 범위(domain)의 분류와 자료들을 나열한 체계성 또한 무척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사전들과는 달리 이 사전에는 단어들이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번에서 93번까지의 의미 영역에 맞추어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한 단위로 묶어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위 1번은 “지리학적 대상과 특성(Geological objects and Features)”, 8번은 “몸과 몸의 구성, 몸의 부산물(Body, Body Parts, and Body Products)”, 12번은 “초자연적 존재들과 권능(Supernatural Beings and Powers)”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미 영역은 하부범위(subdomain)로 세분이 된다. 예를 들어 범위 1의 ‘지

리학적 대상과 특성’은 A에서 P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 A. 우주, 창조(Universe, Creation), (1.1-1.4).
- B. 지구 위의 지역(Regions Above the Earth), (1.5-1.16).
- C. 지구 표면 아래의 지역(Regions Below the Surface of the Earth), (1.17-25).
- D. 천체(Heavenly Bodies), (1.26-1.33).
- E. 대기의 대상(Atmospheric objects), (1.34-1.38).
- F. 지구 표면(The Earth’s Surface), (1.9-1.45)……
- P. 도로: 길, 거리, 골목, 기타 등등(Thoroughfares: Roads, Streets, Paths, etc.), (1.99-105).

이렇게 의미 영역에 맞춰 유사한 단어들을 함께 묶어 놓은 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바로 유사단어들 사이의 공유되는 의미와 미묘한 차이들의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그 의미와 대조되는 단어들이 소개됨으로 특정 단어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이 사전에서 사전적 항목들(lexical items)은 원칙적으로 (1) 물체(objects) 혹은 본체(entities), (2) 사건(events), 그리고 (3) 문법적 관계(functional relations)를 포함한 추상개념(abstracts)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의미 영역(semantic domain)과 하부범위(subdomain)는 공유(shared), 특유(distinctive), 그리고 보충(supplementary)을 기초로 하여 세 주요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예를 들어 범위 19의 “물리적인 충격(physical impact)”에는 모두 치거나 때리는 행동과 관계된 예문을 보여주는 낱말들인 콜라피조^a(κολαφίζω^a) (19.7), 라노디조(ῥανδίζω)(19.8), 마스티조(μαστίζω) 그리고 마스티^a(μαστιγώ^a) (19.9)가 나온다. 그러나 콜라피조^a(κολαφίζω^a)는 주먹으로 치는 행동, 란디조(ῥανδίζω)는 지팡이나 막대기로 치는 행동, 그리고 마스티고오^a(μαστιγώ^a)는 채찍으로 치는 행동을 표현한다. 그리고 마스티조(μαστίζω)와 마스티고오^a(μαστιγώ^a)는 법을 어겨 공적인 벌을 받을 때와 관계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콜라피조^a(κολαφίζω^a)와 란디조(ῥανδίζω)와 분명히 구별된다. 그러나 톱토^a(τύπτω^a), 플래개^a(πληγῆ^a), 플레소(πλήσσω) 그리고 파이오^a(παίω^a)와 같은 단어들 역시 어떤 대상을 한 번 혹은 여러 번 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나타내지만 이 단어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관계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렇게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문맥에 따른 의미의 변화에 따라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에는 단점도 있다. 먼저 색인의 번호로

범위에 따른 단어의 의미들을 찾아야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불편할 수도 있다.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을 모두 알기 원하는 경우라면 각 번호대로 사전을 여러 곳 뒤져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로팩스(άλωπηξ)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동물로서의 알로팩스(άλωπηξ)는 “범위 4 동물”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하고 예수가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불렀을 때처럼 상징적 의미로써 알로팩스(άλωπηξ)의 의미는 범위 88. “도덕과 윤리적 품성 그리고 이에 관계된 행동들 (Moral and Ethical Qualities and Related Behavior)”에서 하부범위 88.120을 찾아보아야 한다. 사룩스(σάρξ), 사르크스(σαρκός)와 같은 단어는 8곳에서, 독사(δόξα)는 11곳에서, 프뉴마(πνεῦμα)의 의미는 자그마치 16곳에서 찾아야 한다. 즉 바우어 사전과는 달리 어떤 단어의 다양한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들을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용 로마자 사전 프로그램은 이런 불편을 모두 해결하였다. 색인번호를 ‘클릭’함으로 검색이 쉬워졌고 ‘클립보드’를 통해 여러 의미들을 한 곳에 모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전의 진짜 한계는 한 단어의 의미가 주로 신약성서의 사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바우어 사전의 경우 초대교회 문헌들과 꽤 많은 고대 그리스 문헌의 자료들을 포함하기에 훨씬 더 폭넓은 의미의 조사가 되어 있다.

2.4. 불규칙 변화와 파생의 의미 언급

이 사전의 또 다른 장점은 표현형식이 다양하여 어형론적 기초(morphological base)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규칙 변화들까지 언급하여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포플라나오(ἀποπλανάω)(31.11)는 “어떤 이에게 그의 믿음들이나 관점들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다 - 속이다, 그릇 인도하다, 전혀 잘못된 견해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되다(to cause someone to definitely go astray in one’s beliefs or views - to deceive, to mislead, to cause to have completely wrong views)”를 의미하며 πλανάομαι ἀποπλανάομαι (31.67)는 “더 이상 진리인 것을 믿지 않고 잘못된 것을 믿기 시작하다 - 진리로부터 빗나가다, 진리로부터 방황하다, 진리로부터 길을 잃다(to no longer believe what is true, but to start believing what is false - to stray from the truth, to wander from the truth, to go astray from)”의 의미를 지닌다.

이 사전에서 파생적 의미는 의미론적으로 이해하였다. 예를 들어 모라이노마이(μωραίνομαι)(32.56)은 파생어 모로스(μωρός)(32.55)의 “어리석은, 바보 같은”의 의미를 기초로 통합된 단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의미론적 파생은 단어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분석과 연구의 결과로서의 어형론적 구조(morphological structure)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디에르매뉴테스(διερμηρευτής) “해석자”

는 디에르매뉴오(διερμηνεύω) “해석하다”(33.146)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의미론적 파생이 어형론적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로 수동태나 능동태적 구조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정보의 내용이란 관점에서 아코에(ἀκοή) “소식”은 의미론적으로 “소식을 전하다”가 아니라 아쿠오(ἀκούω) “소식을 받다(to receive news)”에서 나왔다(33.213을 보라). 이 사전은 단어의 의미를 그 중요성에 따라 알파벳의 어깨 글자로 표기하였다. 아피에미(ἀφίημι)의 경우 자세하게 구분한다면 12개의 의미로 나눌 수 있지만 서술적 정의를 내릴 때 사전적 의미는 훨씬 적어진다. 그리고 보편적인 의미부터 어깨글자 “a”, “b”, “c” 순으로 표기된다(15.43).

2.5. 의미들의 체계적 분류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을 비조직적으로 나열한 경우는 번역자에게 복잡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성서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 로고스(λόγος)의 의미들은 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4013 로고스, 우(λόγος ου), m.

- (a) 진술(statement) 33.98
- (b) 연설(speech) 33.99
- (c) 복음(gospel) 33.260
- (d) 계약(treatise) 33.51
- (e) 말씀(Word) 33.100
- (f) 회계(account) 57.228
- (g) 이유(reason) 89.18
- (h) 사건(event) 13.115
- (i) 외형(appearance) 30.13
- (j) 고발(accusation) 56.7
- (1) 로고스 트레케이(λόγος τρέχει) 소식이 퍼지다(message spreads) 28.25
- (2) 로구 포이우마이(λόγου ποιούμαι) …의 의견이다(be of opinion) 31.2
- (3) 카다 로곤 아네코마이(κατὰ λόγον ἀνέχομαι) 불평을 받아들이다(accept a complaint) 56.10

이러한 구분들은 (1) 의사소통 행위(the act of communication), (2) 의사소통의 구두적 형태(the verbal form of the communication), 그리고 (3) 의사소통의 내용(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으로 분류된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어로 사용된 ‘말씀(Word)’으로서의 로고스(λόγος) (33.100)와 두 사건의

관계로서의 ‘이유’로서의 로고스(λόγος)(89.18)의 의미가 알아보기 쉽게 구별되어 있다.

기존 사전들의 문제는 또한 관용구들에 대한 의미에 관한 조직적 작업이 미약하거나 아예 부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바우어 사전에 따르면 브로코스(βρόχος)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브로코스, 우, 호(βρόχος, ου, ό), 올가미(*noose*), 브로콘 에피발레인 티니(βροχόν ἐπιβάλλειν τινι) “어떤 이를 잡거나 구속시키기 위해 올가미를 씌우거나 던지다 (*put or throw a noose on someone to catch or restrain him*)”... 오직 상징적(*only fig.*) 고전 7:35.

이 단어가 사실 문자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바우어 사전은 이 단어가 상징적인 의미로 상징될 수 있다는 점을 단지 마지막에 매우 짧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로와 나이다 사전은 37.2에서 브로콘 에피발로(βρόχον ἐπιβάλλω)가 문자적으로는 “굴레를 씌우다(*to throw a bridle on*)”를 의미하지만 상징적 의미(*figurative meaning*)로는 “어떤 이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다(*to place restrictions upon someone’s behavior*)”를 의미하며 “제재를 가하다(*to restrict*)”, “지배하다(*to control*)”, “제재를 강요하다(*to impose restrictions*)”로 번역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로와 나이다 사전은 단순히 어떤 표현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가 과연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바우어 사전보다 우수하다.

이 사전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어떤 단어가 한 가지 특정 형태로만 나타날 때 이 사실을 지적해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플랑키나(σπλάνχινα)는 단지 복수로만 등장한다. 또한 어떤 메뉴스크립트가 다른 선택이 가능한 철자법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또한 의미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면 이 사실 역시 지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게네시스(γένεσις, “태어남, 탄생”, *be born, birth*)(23.46)는 어떤 메뉴스크립트에서 겐네시스(γέννησις)로 되어 있다. 단어의 형태가 완전히 다를 때, 이 다른 형태들은 목록화 되어 있고 기본 형태에 따라 전후참조(*cross-reference*)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호라오(όράω)와 에이돈(εἶδον)이 목록화 되었을 때 수록어 에이돈(εἶδον)은 호라오(όράω)를 찾아보도록 지시되어 있다.

3. 본 사전의 사용 방법

이 사전을 사용함에 있어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1) 그리스어 단어로 시작하는 방법 (2) 영어 단어로 시작하는 방법 (3) 성서 본문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3.1. 그리스어 단어로 찾는 방법

그리스어-영어 색인에서 단어를 찾으면 곧바로 그 단어의 격변화와 명사의 성, 부사에 대한 두 세 개의 선택용 형태, 그리고 동사에 대한 불규칙한 형태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용어구와 단어의 의미들을 가리키는 낱말들이 선택되어 있는 리스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로고마케오(λογομαχέω)의 낱말들은 “말에 대하여 논하다(argue about words)”의 내용이며 이는 범위 33과 그 안에서 수록어(entry) 454번을 지시하는 번호 33.454를 찾아보도록 되어 있다. 파라칼레오(παρακαλέω)의 경우 불규칙 동사변화가 모두 수록되어 있고 논쟁이 되는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 파라칼레오(παρακαλέω) 위에 어계 글자^{a, b, c, d}를 사용하여 그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의미는 범위 33 ‘커뮤니케이션’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용기를 주다(to encourage)”는 의미는 범위 25 “자세와 감정(Attitude and Emotions)”에서 다루어져 있다. 율탈모스(ὀφθαλμός)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눈(eye)”(8.23), “시야(sight)”(24.16), 그리고 “이해(understanding)”(32.24)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율탈모스(ὀφθαλμός)는 9가지 다양한 숙어에 등장하는데 이 의미들 또한 잘 설명되어 있다.

숙어적 단위(idiomatic unit)에 소위 ‘내용어(contents words)’라 불리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한 숙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율탈모스 포네로스(ὀφθαλμός ποιηρός)는 어떤 문맥에서는 “질투(jealousy)”(57.108) 그리고 다른 문맥에서는 “인색함(stinginess)”(88.165)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숙어들도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문맥에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전은 숙어의 문자적 번역도 번역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그 숙어의 문자적 의미는 삼입구로 표시하였다.

3.2. 영어 단어로 찾는 방법

영어 단어로 시작한다면 먼저 영어-그리스어 색인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영어-그리스어 색인은 그리스어-영어 색인과 상당히 다르다. 왜냐하면 이 색인에는 제한된 영어단어들만 나오며 또한 영어 단어의 모든 의미들에 상응하는 모든 그리스어 단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두 포함시킨다면 이 사전이 현실적으로 그 복잡성과 부피로 인해 번역자에게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제한된 공간에서 영어 단어에 상응하는 각 그리스어 단어가 나오는 범위의 번호를 제공하여 그리스어-영어 사전을 통해 그

의미들을 파악하게 하였다. 영어 단어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사전들이 지니지 못한 큰 장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영어-그리스어 색인이 있는 사전은 흔치 않다.

3.3. 신약성서의 본문으로 찾는 방법

만일 신약 성서의 어떤 특정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의 의미를 찾길 원한다면 성서 색인을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서구절들이 색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전에서 사전적 항목에 나타난 의미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성서 본문의 선택은 아래의 두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1) 본문의 명확성(clarity)과 특수성(particularity) 그리고 (2) 주해를 위해 지닌 본문의 중요성이다. 성서 색인이 있는 사전은 정말 드물다. 특히 바이블웍스(BibleWorks)와 같은 성서 CD에 포함된 로와 나이다 사전을 사용한다면 성서구절을 읽으면서 동시에 단어의 의미의 검색이 가능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단순히 이 작업만으로도 전문적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설교나 성경공부를 위해서도 성서해석의 상당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고 성경공부와 설교를 유익한 내용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4. 의미 분석과 분류의 기본적 원리

다음은 이 사전이 어떠한 의미론의 원칙에 따라 단어의 의미들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원칙을 알면 이 사전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것이다.

4.1. 첫 번째 원리: 동의어란 없음

사전적 항목의 의미 분석의 첫 번째 원칙은 두 사전적 항목들이 결코 모든 문맥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비록 두 사전적 항목들이 지시적(designative) 혹은 표시적(denotative) 의미들에서 전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사성을 지닌다 해도, 그들은 함축적(connotative) 혹은 연상적(associative) 의미에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저자가 서로 다른 두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한 본문에 사용했을지라도 이 두 단어는 막상 다른 문맥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동의어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원칙은 수사학적 목적을 위한 변화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더 세련된 스타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 ὁραω와 βλέπω, λέγω

와 *λαλέω*가 바뀌어 가며 사용되기도 하는데, 특히 요 21장의 경우 *ἀγαπάω*와 *φιλέω* 사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학적 목적을 위해 준 변화라 해도 원칙적으로 그 뜻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약의 저자가 그 미세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그 단어들을 교환하며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 이 사전에 둘 혹은 그 이상의 표현들이 같은 수록어(entry)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결코 그들이 완전히 같은 동의어라는 말은 아니다. 이는 단지 신약성서와 그리스 문헌 추가 자료에 근거하여 그 의미의 차이를 정의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할 뿐이다.

4.2. 두 번째 법칙: 의미의 차이는 본문 자체의 문맥 혹은 본문 외의 문맥에서 결정됨

의미 분석의 두 번째 기본 원칙은 단어의 의미의 차이가 문헌(textual) 혹은 문헌 밖(extratextual)의 문맥에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문서의 문맥(textual context)이란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immediate sentence)이나 혹은 문단, 담화(discourse)의 큰 단락, 담화 전체, 같은 저자의 다른 작품들, 비슷한 장르의 다른 문헌들, 유사한 개념/단어를 다루는 동일한 언어로 된 문헌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헌 외의 문맥도 존재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접근으로 토기나 동전과 같은 고고학적 발굴의 자료에 근거한다.

의미의 차이가 문맥에 의해 결정되기에 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 가장 잘 맞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말로 이 원칙은 문맥 안의 의미의 일관성(coherence)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용사 타페이노스(*ταπεινός*)는 고전 그리스 문헌과 성서 외의 문헌들에서는 모두 약하고(weak), 비열한(mean), 천한(base), 낮은(low)과 같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마 11:29에 나오는 타페이노스 태 카르디아(*ταπεινός τῆ καρδία*)의 의미는 긍정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의 멍에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되어졌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로 인해 신약성서의 그리스어가 고대 그리스어와는 아주 다른 매우 독특한 그리스어 문체로 쓰였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신약성서의 그리스어는 전형적인 헬레니즘 그리스어로 쓰여 있다. 단지 경우에 따라 그리스어의 원래 의미보다는 유대적 배경의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상용어로 표현된 경우가 많아 그리스어의 의미를 벗어난 경우를 참작해야 한다.

4.3. 세 번째 법칙: 의미는 특징들의 한 묶음

의미 분석의 세 번째 원리는 의미가 특징들의 한 묶음(a set of distinctive features)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징들의 한 묶음이란 말은 특별한 구어체 형식이 의미의 한계를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혈통(생물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의 차원에서 파태르^a(πατήρ^a, 아버지)(10.14)는 매태르(μήτηρ, 어머니)(10.16), 휘오스^a(υἱός^a, 아들)(10.42), 그리고 태가태르^a(θυγάτηρ^a, 딸)(10.46)와 반대된 개념이다. 그는 남성이며 생물학적으로 직계 아버지로 정의된다. 그러나 파태르^b(πατήρ^b)(항상 복수로 사용되는 10.18)의 경우 보통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생물학적인 혹은 합법적인 “부모(biological or legal parents)”를 그리고 파태르^c(πατήρ^c)(10.20)의 경우는 “조상(ancestor)”을 의미한다. 파태르^d(πατήρ^d)의 경우는 조상, 혹은 남성성 등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명칭(Father, title for God)으로 사용되며 동시에 파태르^a(πατήρ^a)에 나타난 권위와 신중한 보호의 성격을 보여준다. 파태르^e(πατήρ^e)(87.48)의 경우는 지위의 명칭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남성)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존칭이다. 예를 들어 마 23:9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파태르^e(πατήρ^e)(87.48)는 당시 문화에서 파태르(πατήρ)란 용어가 호칭인 점을 상기시키며 본문을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생물학적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경우로 태캐(θήκη)(6.119)는 요 18.11에서 문맥상 칼을 집어넣는 통으로 “칼집(sheath)”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는 태캐(θήκη)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태캐(θήκη)는 일반적으로 “한 사물을 습관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릇(any receptacle into which an object is customarily placed for safekeeping)”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테오(αἰτέω)의 경우에는 더 복잡한 문제를 지녔다. 하이테오(αἰτέω)(33.163)는 “구하다, 기도하다, 요구하다(to ask for, to pray, to demand)”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하이테오(αἰτέω)가 과연 한 가지 혹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아마도 한 가지 의미를 지녔지만 좋은 번역을 위해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5:42에서 하이테오(αἰτέω)는 ‘구하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행 13:28에서는 ‘요구하다(demand)’가 더 정확한 번역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일 경우 ‘기도하다’가 가장 상응하는 말이다(요 14:14, 요 16:23, 골 1:9, 약 1:5 요일 3:22).

4.4. 네 번째 법칙: 상징적 의미들과 관계된 세 가지 요소

의미 분석의 네 번째 원리는 상징적 의미들(figurative meanings)이 세 가지 근

본적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 요소들은 1) 범위들의 다양성, 2)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의식의 수준의 차이, 그리고 3) 전통적인 사용의 한계이다. 예를 들어 예수가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여우의 의미의 알로팩스(άλωπηξ)라 불렀을 때 이는 범위 동물로서의 여우의 의미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여우의 상징적 의미가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전은 동물로서의 알로팩스(άλωπηξ)는 4.10에서, 그리고 상징적 의미인 알로팩스(άλωπηξ)는 88.120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눅 9:58(“여우도 굴이 있고”)에 등장하는 동물로서의 알로팩스(άλωπηξ)는 그리스적 표현이라기보다는 히브리어 사과의 번역임으로 구약에서 처럼 여우나 자칼 모두를 가리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우라는 동물이 전혀 생소한 문화에서는 작은 들개, 혹은 들개와 비슷한 작은 동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적 의미로서의 알로팩스(άλωπηξ)는 악하고 교활한 성격을 가리킨다. 어떤 문화에서는 에이파테 태 알로페키(εἶπατε τῇ ἀλώπεκι)를 직역하여 ‘여우에게 말하라’(헤롯에 대한 언급으로)로 번역할 경우 오히려 본문의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생긴다. 특정 문화에서 여우는 매우 지혜로운 동물이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여우가 가장 낮은 창녀나 남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눅 15:17의 에이스 에아우톤 데 엘톤(εἰς εαυτόν δὲ ἐλθών, 스스로 돌이켜)은 그가 물리적으로 몸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돌이킨 상태를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이 상징적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쉽게 심리적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영어에서도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네포스(νέφος)(11.3)는 문자적으로는 구름을 뜻하지만 히 12:1에서는 ‘큰 집단’ 혹은 ‘다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벤후 2:17에서 사람들을 호이클라이(ὀμίχλαι) 안개(광풍에 밀려가는)로 표현한 것은 상징적이라기보다는 비유적 표현이라 보인다.

4.5. 다섯 번째 원칙: 공유된 의미들의 관계의 복잡성

의미 분석의 다섯 번째 원리는 같은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와 다른 단어들이 공유하는 비슷한 의미들과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힘들고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공유하는 기초적 의미(Grundbedeutung: ground meaning)를 찾는 것은 많은 경우 불가능하다. χάρις는 이런 예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눅 4:22에서 카리스(χάρις)는 문맥상으로는 ‘웅변적인(eloquent)’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더 일반적인 의미는 ‘호의나 이득을 제공하는 편의 호의적인 경향’, 혹은 ‘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어떤 때는 ‘실지로 받은 호의나 이득을 받은

이가 즐기는 은혜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가 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공통적 기초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물론 '선량함'이나 '미덕'을 공통적이며 기초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번역자에게 실제로 별 도움이 안 된다.

5. 나가는 말

의미 영역을 중심으로 만든 이 사전은 신약성서 연구와 번역을 위해 고급 그리스어 사용자는 물론이고 그리스어 초보자들에게까지 매우 유익한 사전이다. 단어의 의미들이 성서본문의 문맥을 중심으로 쉽게 풀이되고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전은 무엇보다 신약성서 번역자에게는 필수적인 사전이다. 물론 이 사전은 이미 오래된 성서의 전통에 익숙하여 성서적 용어가 이미 신학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된 서구 문화 속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전에서 단어에 관한 의미영역과 의미에 대한 설명들은 기존 영어 성서들의 번역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의 역사가 짧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새로운 문화권을 위한 신약성서 번역작업을 위한 이 사전의 유익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신약 성서의 표현들이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타 문화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을 잘 설명하여 놓았다.

다른 사전들과 비교해서 이 사전은 분명히 상징적 혹은 은유적 의미의 의역의 차원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런 설명들은 기존 영어성서의 번역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종종 신학적으로 꼭 옳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말이다.

그리고 문화에 따른 의역적 설명이 강점인 이 사전은 RSV(Revised Standard Version)를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직역 중심으로 개정된 ESV(English Standard Version)⁸⁾나 직역을 고수하는 개역성경의 개정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런 직역 성서의 경우에도 직역으로 인한 오해를 막기 위해 각주를 통해 본문의 의역적 의미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 신학자와 주석가를 위해서는 이 사전이 결코 세 번째 개정판 바우어 사전

8) 이는 RSV에 대한 복음주의적 개정판 성서로 직역 중심이면서도 구약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번역한 영어성서이다. NIV보다는 직역중심이며 NASB보다는 관용구를 많이 수용하였다.

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먼저 기존의 신학적 정보와 이미 출판된 영어성서들을 근거로 원어의 의미를 밝히는 이 사전은 고도로 전문적인 주석의 수준이나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주석가나 번역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진지하고 전문적인 성서 주석이나 번역을 위해서는 이 사전을 세 번째 개정판 바우어 사전과 함께 사용할 것을 추천해 주고 싶다.

완벽한 사전이란 없다. 사전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최소 두세 개의 좋은 사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약성서 본문에는 아직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논쟁 중인 경우가 있고 다양한 사전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기를 원하는 주석가와 번역자에게 고대 그리스 문헌의 단어 사용과 다양한 의미들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로와 나이다 사전은 성서 이외의 고대 그리스 문헌의 자료들에 약하지만, 바우어 사전은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그리스어 단어의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예들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런 차원에서는 리델-스콧 존스(Liddell-Scott-Jones) 사전도 추천해 주고 싶다.⁹⁾ 종종 바우어 사전에서 볼 수 없는 그리스 문헌들에 나타난 단어의 새로운 의미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작업을 원하는 번역자에게는 테자우루스 링구에 그래캐(*Thesaurus Linguae Graecae, TLG*)의 사용을 꼭 권하고 싶다. 이는 현존하는 BC 7세기부터 AD 7세기 시대 사이의 그리스 문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CD이다. 따라서 한 단어가 사용된 예를 그 어느 사전보다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특히 그 단어가 나오는 문맥을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사용의 빈도에 대하여 시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기에 더욱 유익하다. 단점이라면 이 CD의 본문들이 그리스어로만 되어 있어 그리스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CD의 사용은 단지 단어의 사용의 빈도를 알 수 있는 기능에 제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원문과 함께 영어번역이 실려 있는 롭 클래식 라이브러리(*Loeb Classical Library, LCL*)를 함께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로와 나이다 사전은 기존 사전에서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리스어의 초보자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사전이다. 신약 그리스어 초보자들에게 원어성서는 너무나 높은 장벽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바우어와 같이 훌륭한 사전의 사용은 쉽지 않다. 첫째 사전의 두꺼운 부피와 방대한 자료로 인해 위압감을 느끼기 쉽고 용기를 내어 사전을 펴면 경우에 따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문장들과 낱말들이 나오는데(좋은 사전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무거나 고를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떤 의미영역인지 혹은 어떤 뜻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9) Henry George Liddell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New York: At the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로와 나이다 사전은 성서의 본문에 따른 단어의 의미영역과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놓았기에 초보자들이 대하기 쉬운 사전이다.

이 사전은 신약을 공부하는 신학생과 설교자와 성경공부 인도자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성서 색인이 있기 때문이다. 성서 색인을 보면 각 성서 구절의 중요한 단어들 소개되어 있고 주어진 번호를 따라 범위를 찾아보면 그 단어들이 그 문맥에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아마 이 작업만 해도 잘못된 해석을 피할 수 있고 성경공부와 설교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 질 것이다. 컴퓨터용 로와 나이다 사전은 이 과정을 훨씬 쉽게 해놓았다. 영역 번호의 ‘클릭’을 통해 각 범위로 쉽게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있는 컴퓨터용 로와 나이다 사전은 영어 색인이 없기에 영어 검색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요 21:15-17에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을 보자.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서, 아가파오(ἀγαπάω)와 아가페(ἀγάπη)는 신적인 사랑을 그리고, 필레오(φιλέω)와 필리아(φιλία)는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대답이 결국 겸손하게 필레오(φιλέω)로 나올 때까지 예수가 그에게 계속 질문했다고 설교를 하는가! 그러나 이 사전은 요 21장의 문맥에서 이는 수사학적으로 단순한 반복을 피한 것임을 설명하며(25.43) 전혀 다른 문맥에서의 구분을 본문에 적용시키는 위험을 말하고 있다. 실지로 아가파오(ἀγαπάω)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을 때(딤후 4:10), 그리고 70인역에서 압살롬이 이복누이를 강간할 때도(삼하 13:1) 사용된 단어이다. 즉 성서에서 아가파오(ἀγαπάω)는 꼭 신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경우다. 그 외에도 언급할 수 있는 수많은 장점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독자들이 이 사전을 직접 사용하며 그 참맛을 음미하길 바랄 뿐이다.

* 주요어

의미 영역, 그리스어 사전, 의미 분석, 상징적 의미, 은유적 의미.

* 참고문헌

-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Liddell, Henry George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New York: At the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Louw, Johannes P. and Nida, Eugene 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Nida, Eugene A. and Louw, Johannes P.,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A Supplement to the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SIL Resources for Biblical Study 25, Atlanta: Scholars, 1992.

<Abstract>

A Critical Evaluation of Louw and Nida'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and an Introduction to How to Use This Lexicon

Prof. Min-Kyu Lee
(Assistant Professor, Korean Bible University)

Louw and Nida'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translating the Greek New Testament. The first volume contains 93 categories called semantic domains, each domain being divided into subtle sub-domains. In the second volume, access to this meaning is provided by three kinds of index: Greek-English, English-Greek, and Scripture. Some words have different meanings and some meanings of different words are quite similar. Therefore, unlike a traditional lexicon, which arranges words in alphabetical order, Louw and Nida arrange all the Greek words in terms of semantic domains of related meanings. So the same words can be listed in several places, and words of similar meanings occur in the same place.

Louw and Nida's first contribution is to explain how different words are related in terms of meanings, and this enables the translator to choose satisfactory equivalents in other languages. Louw and Nida's lexicon excels in explaining the metaphorical usage of words, and in describing the cultural features of words. It is useful not only for advanced learners of New Testament Greek, but also for beginners who feel some difficulties in accessing the complex meanings of words through advanced traditional Greek lexicons such as Bauer's. The Louw and Nida lexicon, though it is highly academic and professional, is easy to access and understand for New Testament Greek learners.